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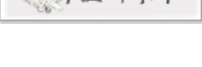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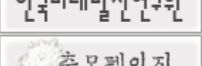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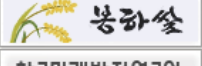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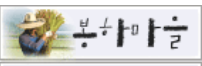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회원이가입 | ID/PW 찾기

말과 글

생활의 작은 기쁨

조회수 : 128080
등록일 : 2008.03.09 17:52

- 노무현이야기**
- 걸어온 길
 - 말과 글
 - 함께 생각해봅시다
 - 추모게시판
 - 좋은글과 영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과연 노짱이 이 글을 읽을까?’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물론 봅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깐요. 띄엄띄엄 읽어도 많이 감동한답니다. 글을 읽으면서 과분한 격려에 황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려면 앞으로도 참 힘들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는 되도록 빨리 개선할 것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기획안을 넘겨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지금 기획하는 것은 ‘자료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 연구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은 자료가 축적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자료 중에는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잘 분류하고 다듬어서 축적해 두고, 저나 여러분이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참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관리 사이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원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발견했을 때, 깊이 생각하여 새로운 이치를 깨달았다 싶을 때, 혼자 생각한 이치를 훌륭한 사람이 쓴 책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때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일어서서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도 그만한 기쁨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은 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구상하는 기능에 꼭 맞는 시스템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째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신고식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짐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차분하게 생각하고 글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 쓰고 있는데, 점심 먹자는 연락이 왔군요. 그런데 대문 밖에선 손님들이 나오라고 아우성입니다. 잠시 나가서 인사하고 와야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부산 민주 공원에 가서 참배하고 왔습니다. 오후에는 각 지역 노사모 대표일꾼들과 봉화산에 다녀왔습니다. 한 시간짜리 코스였는데 아이들과 하이힐을 신은 사람들과 함께 걷다 보니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에는 그 사람들과 진영에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가서 보니 삼겹살 가게 주인이 먼 촌수의 집안 조카였습니다.

점심 먹고 몇 줄 쓰고 있는데 대문 밖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나가면 화포천까지 산책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가며 오며 만나는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을 생각입니다. 며칠 전처럼 또 길이 막혀 도망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하여 느낌 몇 가지 써보려고 글을 시작했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 글을 마쳐야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야기는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3월 9일 노무현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9개월의 비탄하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총평 185개

ManualJedi 2008.03.09 18:37

관리자님, 대통령님 글 맞춤법 수정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 확인하세요.

부레옥잠 2008.03.09 18:37

너무나 존경합니다.
노무현님 언제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갈구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언제나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두아이아빠 2008.03.09 18:38

*** 우와 일빠!!
보기만 했던 일빠를 처음해보네요.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격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참다운세상 2008.03.09 19:03

댓글이 잘 안라갑니다.
관리자님 손 보세요. 업무가 많이 밀리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버지 2008.03.09 19:05

너무 정겹습니다.
대통령으로 계실때보다 하루를 맞이하시고 보내시는것이 너무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런 시간들이 알차고 계속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구요

Elise 2008.03.09 19:19

와
잘읽었습니다 ^^

다이나 2008.03.09 22:48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눈물이 핑뚱니다.
"여러분들 실망 시키지 않으려면 참 힘들게 살아야겠구나"
참으로 고마우신분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이 있다는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대통령님 정말 건강하셔야해요. 존경합니다

천심 2008.03.09 23:40

참 행복하고민입니다..
그만큼 노짱께서 5년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겠죠

나리 2008.03.10 00:18

너무 반갑습니다...
퇴임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될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반갑고 기쁩니다...

유림2 2008.03.10 02:15

느림의 미학을 느끼시며..
이제는 서두루지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 느릿느릿 봉하의 맑은 하늘도 보시고
그동안 누리지못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인연이되던 저도 뵈을날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봉하마을에 관광객이 많다하니 그분들
모두방문하시고 오실때는 가벼운 발걸음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나이눈물 2008.03.10 08:15

9일날 점심때 거기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성지순례같은.....느낌.... 도착하자마자... 뛰어갔다.. 벌써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나오세요...라고 외치고...몇번 안그랬는데... 식사하다 나오셨단다.. 괜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고향오셔서 좀 쉬셔야 하는데.. 아마...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더욱 더 빛나게 만들어 줄것입니다.....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yyy2009 2008.03.10 13:15

가식없는 편안한 글 잘 읽었습니다.
노통의 글을 대하면 웬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행복을 갈구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언제나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노짱

화... 2008.03.10 15:35

꼭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2002년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를 가까이서 접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때도 느꼈지만, 꼭 저의 아버지 같으십니다..
그만큼 너무 정겹다는 얘가지요.
대문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친다고 나가서 인사하는 전대통령...
아마 세계에서 처음일겁니다.
우리 이런 대통령 있다고 자랑하고 싶네요... ^^

조국통일 2008.03.10 17:46

아, 대통령님, 좀 쉬시라니까요~!!!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충전하고 다시 가열차게 시민과 국민, 국가를 위한 구상을 하시지요. 늦잠도 자고, 30분 정도 낮잠도 주무세요!! 머리와 마음의 휴식이 필요 할 땐, 몸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아프시면 안됩니다. 지치셔도 안됩니다. 한 달이 너무 길

면, 1주일 만이라도 몸, 마음, 머리 꼭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달빛별빛 2008.03.10 18:57

4월쯤 뵙고 싶습니다.
5년전 취임식에 초청받은 영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밀 정직하고 소탈한 우리의 지도자임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왜 자꾸 코끝이 쩡해올까...

짐주 2008.03.10 20:47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될까요? 궁금하네요. 기대되네요^^*

단팔뿔 2008.03.10 21:08

오늘은 서버가 빠르네요.
며칠 전부터 왔었는데 버벅거리기만 해서 실망아닌 실망했습니다. 빨리 글 남기고 싶은데 로딩도 잘 안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사실 봉하마을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전 부터 해 왔었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리도 많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나하고만 사진찍기를 마했는데, 지금은 너도 폼사리라도 끼어서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회는 오겠지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

노짱홀릭 2008.03.11 00:41

걱정되어 큰일입니다.
며칠 전에도 봉화산에 갔는데
저 아래 노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나와달라는 사람들의 함성이 산 정상에까지 들려옵니다.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손님들이 자꾸 이러면 편히 할 일을 못하실텐데...

그냥 조용히 왔다가 돌아들 가시면 안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몽몽이 2008.03.11 00:51

새로운 홈페이지를 설계하실 때...!
새로운 기능도 좋지만, 다양한 시스템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표준을 잘 지키는 홈페이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된북중늑네임 2008.03.11 03:04

아...배고파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디....
잠은 안오고 배도 고프고....
억지로라도 잘 걸...하고 후회 할 텐데....

가시언덕 2008.03.11 14:49

내 마음의 대통령은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처가에 들릴때 한번 뵙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dosl 2008.03.11 22:05

노무현 대통령님,건강하셔야 해요,,,
혹시 아프 시면 재생활도 영망이 될것 같아서,,,코술 ,,담배 줄이시고,, 채식 위주로 식사 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ㅋ

사위하다가그만 2008.03.12 11:00

왜 그리울까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시위 할 때가...'불나비'를 부르며 촛불을 흔들었던 그날이....잘 계시죠? 항상 뉴스에서 보다가 이제는 만나와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짱을 배경화면으로 해 뒀습니다...해 놓고 보니깐 광화문에서 있던 날이 생각나더러구요...

절레꽃 2008.03.12 11:04

우리들이 대통령님을 쉬지도 못하게 하는군요
봉하에서도 너무 바쁘게 사시네요.
좀 쉬셔야 할 텐데요.

절레꽃 2008.03.12 11:04

우리들이 대통령님을 쉬지도 못하게 하는군요
봉하에서도 너무 바쁘게 사시네요.
좀 쉬셔야 할 텐데요.

고막 촌놈 2008.03.12 11:05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가슴에 영원한 별이되어 자리하실 님은 건강하셔야죠

sena 2008.03.12 14:30

벗꽃이 피는날 찾아뵙겠습니다... ^^*
얼굴뵈면, 눈물부터 날겨갈아어... ^^*

윤경과과 2008.03.12 16:23

언제쯤 에나 한번 저도 노짱님을 뵙수 있을까요
뵙고 싶습니다 꼭 한번만이라도

노무현님 2008.03.12 22:28

존경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신 우리 대통령님 !!! 존경합니다

고막 촌놈 2008.03.13 11:51

노무현 대통령님과 무엇이든 동행이였으면....
힘든힘난한 일도 쉬워질것같은 느낌 노짱님 가시는길에 무조건 동참입니다.

가희수호천사 2008.03.13 12:15

계시기에 듣드립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신지기 2008.03.13 12:17

노대통령님!!!! 나도 글쓰고 싶어요.
글 등록이 안되요. 왜 나만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만이 2008.03.13 16:21

정말이지 생활의 작은 기쁨을 주시네요^^
글 읽을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정말 멋진분이세요.

용기백백 2008.03.13 17:00

건강하세요
님이 있어 하루 하루 즐겁습니다.

민우 2008.03.13 19:57

항상 존경합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뵈수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아틀리 2008.03.13 21:38

심심한 대통령
님이 계셔서 행복했고, 정말 살 맛이 났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심심한 (전직) 대통령이 되셔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마뻐 뛰면서
못보셨던 것들을 두루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일상에 파묻혀 사는 우리들에게 광! 정수리를 얼얼하게 하는 한 마디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도 계속 깨어있을 수 있지요.

느티나무언덕 2008.03.13 22:11

행복하시네요
5년 고생하시었습니다.
그 밋 그림이 먼 장래의 대한민국의 무궁화 꽃입니다.

하슬라 2008.03.14 00:13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많이 보고프고 그럽습니다. 오늘에야 이 홈페이지를 알았어요 그 못친 다음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답글읽다가 이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혼자 끄꿍 안알아도 되죠? 여기오면 볼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신라장군 2008.03.14 00:24

먼훗날~~
역사적으로 왕의 평가는 그다음 세대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노대통령님의 생각과 철학은 먼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 할 것입니다.

소금별 2008.03.14 05:15

글 읽는 재미 ^^
수필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을 너무 잘 쓰세요. ^^
책 출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

북극설 2008.03.14 14:02

북경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 가면 꼭 사진 찍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하고 한컷만 찍으면, 가보로 물려줄겁니다..

근데 제가 독신주의자라서 물려줄테가 없네요 ㅠㅠ;

남사랑 2008.03.14 17:41

부부동반해 진영으로 가 뵈됩니다.
상사병날것같아서요 ..

mysunami 2008.03.14 20:47

성원
항상 건강하시고 존경합니다 노대통령님!

세상 2008.03.14 22:16

이런 분을 전직 대통령으로 모신 우리나라민들.. 참.. 복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국민답게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분...
노무현 대통령..따라하기만..해도..이번 실용정부 절반의성공일거다.

나무1 2008.03.15 09:3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 뵈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올해가 가기전 아내랑 아이랑 한번 찾아 뵈게요..^^
언제나 그랬던것 처럼 웃음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 2008.03.15 10:13

같이 농사 지으며 살고 싶네요.
드라마 전원일기의 김희장님 같이 살아주시고 저는 영삼이처럼 농사지으며 같이 살고싶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bbistonetwo 2008.03.15 12:04

우리 대통령님

4번째 편지도 정감이 넘쳐 맘에 많이 와닿습니다.

항상 이렇게 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상대를 음해하는 내용이나 너무 대통령님을 추종하듯하는 내용도 대통령님을 더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 하십시오

임정진 2008.03.15 12:23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도 않은데 참 걸음하기가 힘드네요..

처음부터 막연하게 좋았습니다. 남들이 대통령이 체신없다고 할때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

남들이 욕해도, 저도 비난을 했지만 그래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제 스스로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늘 건강하시구요, 봉하를 가게되면 꼭 사진이라도, 악수라도, 아니면 얼굴이라도 뵈 수 있길 바랍니다..

가람지기 2008.03.15 19:14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당신은 백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봉화 아름다운 대안이 되게 수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누구나완벽할순없습니 2008.03.15 20:21

동네 아저씨처럼 편한웃음 모든이의 기분이 좋아질듯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언제나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사르미 2008.03.15 20:50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정겨움과 아름다움이 함께 묻어 나는 그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아고라맨 2008.03.15 21:31

내 마음속에 영원할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님~~

계속 국민들과 소통해 주세요!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러시려면 건강하셔야 하고요~

사랑봄이 2008.03.15 22:03

가슴이 아립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대통령님만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피눈물을 쏟을 정도로 아픈 나날이 많았습니다. 지난 과거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 평가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신 뿐입니다.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중 제일 존경스러운 대통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건강하세요. 제발....두 분 다 건강하게 오래 오래 저희 곁에 남아 계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미야밍 2008.03.16 06:23

존경합니다..

무현님..

지난신사 2008.03.16 10:11

처음

글이 참으로 편안 하군요. 격식도 차원도. 전혀 부담 없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 같지 않고, 평범한 주민 같은

그런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존경 합니다. 건강 하시길~~~~,

플라타나 2008.03.16 12:14

꽃피는 산골~

고향 마을에는 언제나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들의 추억들이 살아있는 곳이죠.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나 황폐해진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농촌 환경 살리기에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앵무 2008.03.16 17:17

소박한 생활상이 넘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적은 글을 보고, 인사하고 소식을 나눌 수 있으니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 부탁드립니다....건강하세요^^

태평양 2008.03.16 21:40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당신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같은 정치인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정치인에게 짜증이 나지만....당신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조금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2008.03.16 21:46

구관이 명관이란....

진짜 명관이십니다

인디펜던트 2008.03.17 07:50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통령

부산상고의 무기실력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석위에 올려놓은 대통령.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차암 2008.03.17 12:27

마음이 뿌듯합니다!

많은 힘을 얻은 느낌입니다.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음을 보고...

마냥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그냥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푸근합니다.

똥똥 2008.03.17 15:17

자랑스런 당신이 우리곁에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언제나 건강 하시고 행복 하시길...

샤를로 2008.03.17 17:29

당신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하는 분이러 그런지 대통령님의 글을 읽을때면 좋은 소식이든 아니든 눈물이 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부모도 아니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모르지만...
우리네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 같은 것... 그런 맘이자꾸드는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 꼭 지금처럼 저희곁에 남아주세요~~

대륙 2008.03.17 21:47

큰 사랑 큰 포용...
아직도 여럿 가슴과 막내의 어리광을 엿보게 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도
많은 가슴앓이를 이젠 조금 덜어 내시고
이제 고요한 세상과 맑은 나라를 위해서 잠을 좀 내셨으면 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스터 뿔락 2008.03.18 09:56

혹시 봉하산에서...
혹시 봉하산으로 등반하면서 소변도 보신일 있나?
소변 보시면서 아무런 사심없이 시원하게 잘 보셨다면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 돌아 오셨네요.
건강하십시오!

애리사랑 2008.03.18 14:09

당신같은 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있자면....10년 후퇴한 기분에 울적해집니다. 다시금 뉴스가 보기싫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같은 분
이 좀 더 해야하는데...하는 생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 임기를 5년 연임제로 개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땅투기 못한 바보 2008.03.18 15:29

복장이 터져 죽을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명바기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복장이 터져 복을것 같습니다..저도 이제 돌연사를 걱정할 나이인데..그래도 아
직 저는 길거리 뛰쳐나갈 힘은 있습니다..노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부산싸나이 아임미끼

아침공기 2008.03.18 15:53

함께하는...느낌!!
사이비상에서나마 이렇게 가까이계신다는 느낌이랑 또 이렇게 저희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참 좋네요~
봄내음이 물씬나는 그런 날들입니다 이곳 마산은 목련꽃도 한창이구요
노짱님을 찾아오시는분들 귀찮다 생각지마시고 지금처럼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려요....아마 그분들은 평생을 두고 행복해하고 자랑하실걸요^^

완초남 2008.03.18 18:16

옆동네 가듯...
옆동네 마실 나가듯 함 찾아 뵙겠습니다. 얼굴 마주 뵈고 손 맞잡고 인사 드렸을 좋겠지만 그냥 면발치서 눈인사나 함 드리는걸로
만족 합니다 ^^ 언젠간 저도 집앞에서 '대통령님 나오세요~' 라고 하겠죠? ㅎㅎ 기다리세요! 곧 가겠습니다. - 월급쟁이 한탄하며 살
면서도 월급쟁이 못 면하는 월급쟁이가... ㅠㅠ

김중현 2008.03.18 20:36

오늘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
대통령님 비회원으로 홈페이지를 보다가 오늘은 회원에 가입했어요...무어라 가슴이 벅차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저도
여름에는 아내랑 대통령님 얼굴이라도 면발치에서 뵈려구 갈려구 해요....아내도 너무 좋아라 하구요...항상 건강잘 챙기시고 존경
합니다.
참 홈페이지에서 동정을 매일 보는게 너무 행복한시간이라 감사하다는 말을 잊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제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가네 2008.03.19 13:03

아름다우십니다
봉화산에 가면 ...재수가 좋으면 뿔수가 있지안을까?

가네 2008.03.19 13:03

아름다우십니다
봉화산에 가면 ...재수가 좋으면 뿔수가 있지안을까?

아리수2 2008.03.19 15:20

노짱님...
사랑해요... ♡♡♡♡♡♡♡♡♡♡♡♡~

원이아빠 2008.03.19 16:51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가지로 힘든 임기동안 도움이 못 돼서 참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쩌면 노짱의 인생은 앞으로가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게릴라 2008.03.19 18:43

서럽게 많이울었습니다

세태를 원망하고 분노도 해봤습니다...세월을 죽이자구요 힘내십시오 면발치서 항상 지켜보고있겠습니다.

창창창 2008.03.19 19:06

왜 이렇게 뿌듯하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통령... 노무현!!!

할범 2008.03.19 22:40

부디 건강하세요.
항상 당신의 소신을 존경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피오나 2008.03.20 09:49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노짱님'이라 불러보네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무현좋아 2008.03.20 09:53

멋진인생
노무현님 제가 보기에는 역대 대통령중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를 보고 감동
먹었고 얼마나 속이 통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미 노빠가 되어있었습니다.
나도 노년에 당신같이 멋진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노무현 멋쟁이..

고막 촌놈 2008.03.20 16:14

여기순천은 매화, 목련, 개나리피었습니다
대통령님 계신 봉화마을은 어떤가요? 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막 촌놈 2008.03.20 16:17

여기만 들어오면 한마디로.....
야~~ 기분조타!!!!

확률과 통계 2008.03.20 22:17

아버지처럼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 대전 양아들입니다. 누구는 생을 나라를 돌보는 일에 매진하여 살고, 누구는 잡지도 못할 여자 환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부
끄럽습니다.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주몽생이 2008.03.20 22:48

내 생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2가지 사건
2002년 월드컵 4강과 내가 뽑은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처음이자 마지막일까?).
다시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셋노란 은행일 2008.03.20 23:16

사랑 하므로 행복합니다
소탈 ~ 순수~ 열정~정의 로우신 노무현 대통령님!
5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만 2008.03.21 09:04

무현님이 꿈꾸시는 대한민국은 올겁니다. 꼭~~~
남께서 꿈꾸고 이루어 하셨던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로 뒤만돌아보는 현재의 세태로 인해 좌절하셨던 그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이 곳에 오면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보면서 많이 좌절도 했지만 이제 다시 희망을 꿈꿔
봅니다... 무현님 땃팅...

안동하회탈 2008.03.21 20:41

정말로 그리운 것 하나...
삼겹살에 썬주 한잔.
그리운 벗이며 영원한 대통령님과 논두렁에 앉아서..

대륜 2008.03.22 12:55

봄 나들이 가는 날~~~
한 줄 한 줄 읽다보면 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삼삼개개 줄고 있는 시골의 한 풍경 같은 그리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곧 갈 겁니다. 녀 신나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보네요.
큰 행복입니다^^^

크랑크 2008.03.22 14:10

행복하세요
대통령시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으로는 아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팬입니다

영수 2008.03.22 15:44

자랑스럽습니다
무현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내세울 전직대통령이 한사람도 없어요.....도망가고 총맞고 퇴임후 징역살고 또 자식새끼 징역살리구 그
래도 뻔뻔하게 감 놔 대출차라 한심한 사람들 늙어서도 욕심이 많으니 찻찻..명바기는 어떨지? 자랑스러운 우리 노무현님 건강하시
고 역할을 다해 주시길...

코디아 정 2008.03.23 10:45

인도에서
당신의 일상을 보고 감격하는것은 당신의 이념과 바른 생활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원했던 것인데 당신만이 실천 했군요 언제나 그 모습으로 영원히 잊혀지는 우리들의 도덕과 윤리를 깨
워주시고 청렴과 신념이 계속되시길....

사막의 샘 2008.03.23 12:48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한 당신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불의와 속임수 앞에서는 언제나 무모할 정도로 강하시고 민초 앞에선 갈대보다 나약하신 당신의 모습에 숙연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합니다.

구리미 2008.03.23 15:51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즐기십시오.
마음이 닿으면 느낄 수 있지요. 역사는 항상 정도로 갑니다.

하늘높이솟아라 2008.03.23 19:05

새로움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새로운 모습보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대로의 모습과
여태 못다이룬 당신의 생각과 하고자 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생각
그것들을 풀어낼수 있는 노짱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닐런지....

세르 2008.03.23 22:16

건강하십시오~
지금과 같은 열광적인 환영과 성화가 취임후 2년여만에 등돌려버린 과거의 국민들 모습처럼 어느순간 또 식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대중은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망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하게 늘 같은 모습으로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호흡하며 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나우나리 2008.03.24 07:01

가슴 뿌듯합니다.
제 생애 이런 대통령을 두었다는게 가슴 벅차고 뿌듯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조넨처녀 2008.03.24 15:48

그런데 대중 몇시쯤 가면 형님 얼굴이라도 보고 올수 있을까요??
혹시 주말에는 시간정해서 얼굴보여주시고 그러시진 않으시나요?

런연맘 2008.03.25 08:59

나도 가서 꼭 외치고 싶어요.
대통령님 나오세요. 꼭 해보고 싶어요.
애들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가서 불러볼래요. 보고싶어요.

하얀도깨비 2008.03.25 09:54

경호는 잘 되고 있는건가요?
티브로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무슨 것이라도 할수있는 그사람들(?)이기에....
노사모 여러분이 든든한 경호원이 되 주십시오.
모든 착한 국민들이 경호원이 되 주십시오.한 번 가고 싶넵.....보고싶고 ㅎㅎㅎ

wordwork 2008.03.25 10:58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유일한 정치인. 전 물론 남자. ㅋㅋ

노짱사랑^^ 2008.03.25 13:05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진정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분
저는 사회복지사인데요 노사모로 활동한 2002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투명한 사회시스템,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의 전환이 노짱께서 일군 업적중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업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오겠습니다.

면장님 2008.03.25 13:17

행복합니다
이 척박하기만한 이 땅에 당신이 있어 진정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청백 2008.03.25 14:30

이글과생각들이-
오래오래남아,실용이라는가면과칠저한배금주의를전파하는,철학없는친박한시대물연이들에게도,이생각과글의진심이깃들기바
랍니다

당수골 2008.03.25 15:44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제일 존경 받는 대통령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현보존 2008.03.25 16:13

저예요
역대 대통령들 권력의 욕심에 사로 잡혀 온갖 비리로 서민들 힘들게했지만
노짱은 달콤한 권력을 한번도 휘두르지도 않고 사셨으니 속이 많이 타셨겠어요.
오늘도 한나라당 차떼기 했는데 돌아 버리겠습니다
어찌하나요 ?

ybton31 2008.03.25 23:24

우리의 노짱!!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 얼마나 노짱의 수고로 높아졌는지요
염려마십시오
함부로 정치하지 못할것이거든요
노짱 !! 노짱 대통령되시기 10년 전부터 저는 대통령이 되실거라고 장담했었거든요
진짜로 그 꿈이 이루어진거있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앞으로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으실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童子僧 2008.03.25 23:47

^_^

이렇게 나를 기쁘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던것이...
그 고생스런 자리에 있기를 바랬던 맘이 미안하기도
당신의 마음 고생에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신때문에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고맙다는 말밖에요..
언젠가 봉하에가면 먼발치에서나마 뵈면 또한 행운이겠구요..
이젠 촌부로서 한가로움을 즐기기에 너무 인기가 많으신듯..^^

NewPeople 2008.03.26 01:29

대통령님~

아니... 전 대통령님이라고 해야되나? 아니면 노무현 아저씨?
뭐 어찌 불리던 간에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중에서 가장 최고였습니다.
재임기간중에 부정부패나 비리도 없었고, 권력의 칼부림도 일으키지 않았죠
게다가 퇴임한 후에 서울이 아닌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시민으로 살고 계시잖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은 단 한명도 그렇지 않는데 말이죠.
현직 대통령도 온갖 부정부패, 비리, 권력의 칼부림도 모자라 볼드◆%

태양 2008.03.26 08:20

대문 밖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ㅎㅎㅎ 그 문밖에 저도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maskofangel 2008.03.26 08:48

건강하세요
알라뷰~

창준 2008.03.26 11:23

건강하세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my sun 2008.03.27 09:00

토요일 갑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봉화마을에 갈려구요..기대만땅입니다..부디 뵈 수 있기를

무지개전사 2008.03.27 21:37

최고라기 보단 최선이셨습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는 노짱을 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속에서 가끔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맘껏 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그 민주주의의 화려한 의식을 심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되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들은 참된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지요...

전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BABO 철이 2008.04.01 17:28

너무너무....

멋진 노짱님....아니 내 인생에 최고에 선생님.... 당신과 이 공간에 있다는게 너무나 저에게 행복하고 과분한 영광입니다...내내 건
강하시고 권여사님과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다운아빠 2008.04.14 21:37

대통령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대통령님의 영원한 지지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조만간 아내와 두 공
주를 데리고 먼 여행을 한 번 떠날까 합니다. 부디 멀리서라도 얼굴을 한번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재민짱 2008.04.14 22:17

사랑합니다!!!!
뵈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삶의 지표로 어르신을 뽑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우리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존경해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이런일이 있다니..존경할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는건.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리진 2008.04.14 23:32

건강하십시오~~~~^^
전 당신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당신을 선택했고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던 대통령임을 ..
우리 아들도 저랑 똑같은 당신의 팬입니다.
사랑합니다

두아이아빠2 2008.04.15 13:28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지요. 권양숙여사님께도 안부를 여쭙습니다. 먼 옛날 세종대왕께서는 성군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
니다. 당신 또한 먼 훗날 성군의 역사로 기록되리라 확신합니다. 당신이 써 놓은 글들, 당신의 행적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사님과 늘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게요. 노짱 대통령님!!!

미엔위 2008.04.19 11:29

아, 몽클
아,,, 그냥 감동입니다.

아연이아빠 2008.04.19 22:54

즐거우시죠.
써 놓으신 글만 읽어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떠오르고
제 기분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언제 시간내서 아이들과 함께 들러 보겠습니다.

쿨하니 2008.04.23 10:41

감사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편지를 보내봅니다.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뱀똥지만 글로써 표현해 내지 못하는게 아쉽네요.

그저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양목수 2008.04.24 06:04

건강하시기를...
제가 무슨자격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악산 가려구요..
어릴때도 소풍가던곳이라서요 ㅎㅎㅎ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에 계기는 분들이 더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도하자 탄나라당 2008.05.03 03:40

탄핵당하기 전에 명박이가 해줄일이 하나 있다.
대통령 중임철폐하고 노짱을 불러와라.

깡상도보리 2008.05.03 06:17

요즘 보기 너무 좋아 십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김해 봉하 마을 가서 꼭 대통령님 뵙고 우리 딸 아들 에게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말해 주고 될수만 있다면 딸
아들에게 사진도 한장 찍어 주고 싶습니다.우리딸 아들 이쁩니다 꼭 사진 같이 찍어 주세요 ^^*

포비3749 2008.05.03 20:30

그립습니다
아주오래전엔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그냥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왜 노대통령이 그리울까요?ㅎ
언젠든 건강하세요^^ 제가 봉하마을 가는날에는 꼭 계셔야한답니다.

영달이 2008.05.04 16:22

대통령 연임제를 다시 한번 밀어 부치면 어떨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할수 있다면 좋습니다.

비우기 2008.05.08 13:21

글도 우째이리 맛갈나게 쓰실까,,
글도 우째이리 맛나게 쓰실까,, "노동산인왕"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발견했을 때, 깊이 생각하여 새로운 이치를 깨달았
다 싶을 때, 혼자 생각한 이치를 훌륭한 사람이 쓴 책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때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
하여 일어서서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너무 동감합니다 방안을 서성거리는 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눈앞에 그리져 진정으로
멋진분이다! 라고 느껴지네요.

elbapd 2008.05.10 11:29

그립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왜이리 가슴이 저미어 오는지..다시또 눈가가 붉어져 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을 진정 존경합니다..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미소*^^* 2008.05.11 10:38

완전 감동요..
깊은 배려 감사해요
이 글을 읽는데 직접 말씀하시는것처럼 사투리역양으로 들리지? ㅎㅎ
뒷산 언덕에 올라가 좋은사람 생각하는것처럼 가슴이 팍 차 오르네요

나의 각하 2008.05.12 04:17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민초들의 글을 읽어 주시고 이렇고 글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울 나라를 위해서 더많은 일들을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그립소 2008.05.17 10:12

당신이 있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라는 말이..
당신이 있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라는 말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래요..

양촌어른 2008.05.18 19:54

광주를 돌아보며...

오늘은 5.18민주열사들의 눈물인지 하루종일 비가 오네요. 그렇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인데 정신차리고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청계천에 나가보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queen7 2008.06.02 21:44

일하는여자는

아름답군요요 요새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긴 힘들지만 해보면 매력적일거라 생각해요
경제적 빈곤으로 일하는것보다 우리 개인의 정서적인 삶을 위해 일할수 있는 그런 나라였음해요
언급고갈 광우소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주변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맑은 웃음을 할 수 있는 따뜻한나라 이런 나라 좀 만들어 봅시다

물소 2008.06.06 13:19

글 자주 올려주셔서^^

바쁘시겠지만
많은 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삶의 희망 이거든요.

박기통 2008.06.07 17:49

어이타?오늘에사

봉화산 중자락에낮은자 있다하네 어좌에호령은어제 이거늘 오늘은 그저 민부로 돌아오니
만백성이 이제사 어제를 칭송하네

민주주의2.0 2008.06.10 22:45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언제나 꼭 건강하시길

들꽃산열매 2008.06.18 04:02

조급한 국민성이 버린 사람...

소중한 사람은 지난뒤에야 알게되나봅니다.

[도토리] 2008.07.11 04:57

너무 아름답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동영상상 통하여 보니 너무 좋습니다...

대통령님의 향수를 달래려고 봉화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일이 기념 촬영까지 챙겨 주시는 모습과 봉화산을 비롯한 대통령님의 고향 곳곳을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대통령님~그럽습니다.....늘 건강하시고..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큰 힘이 되어 주세요..

건강 하십시오.....

마로니 2009.04.20 17:48

가정엔 가장이 든든한 힘이 되어 주드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엔 노무현 대통령님을 의지하고 당신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부디 굳건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쟁어페이 2009.05.23 21:56

존경했어요...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였다고...

사랑합니다노무현대통령님 2009.05.23 23:58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 대통령이셨습니다.

진정으로 정직한 대통령이셨습니다.

나은선균맘 2009.05.24 00:16

이제야이 글을 읽습니다. 정말 소박한 생활을 꿈꾸셨을 뿐인데... 왜 세상은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미운 사람,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아,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님.. 아니, 노무현 할아버지... 너무나 그럽습니다

이겨낼수있어 2009.05.24 01:08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무현대통령님을 걱정하셨네요 건강하셔야되요 채식위주로 드시구요 라는 구절에서 눈물이 쏟아질 수 밖에 없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워합니다... 돌아와주세요.....

문진영 2009.05.24 10:37

벼랑끝.

항상 그곳으로 스스로를 몰아세워 이겨냈던

당신의 삶을,

왜 그곳에서 마감하셨는지..

슬픔이 저의 온 마음을 덮었습니다.

너무나 좋은분 이셨기에 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부재를 가슴아파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소중한 분이셨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약한자들의 편에 섰던 민주적 군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Mrs.,Jung 2009.05.24 14:35

하늘에서도 지금 밖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세요? 아마 지금도 환하게 웃으시며 손 흔들고 계시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보내야 하는 저희 마음 다 아시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요슬퍼 2009.05.24 17:44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입니다

눈물로.. 가슴아파하며..

이쁜이76 2009.05.24 20:17

노무현대통령님이 직접 글을 쓰신걸 읽을때마다 자꾸 맘이 아파옵니다

이렇게 순수하신분을 더이상 볼수 없다는것이 넘 화가납니다
아직까지 믿을수가 없습니다... 다시 뵙고 싶습니다...

monorogize 2009.05.24 22:07

아버지 같은 분..... 어디 가셨나요.. 왜 그렇게 가셔야만 했나요.....
한번만 더 생각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지..... 조금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보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대통령.. 우리는 이제 만나볼수없는건가요...

소공이산 2009.05.24 22:46

이런 분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라는 이름들이 당신을 속박하고 당신의 이상을 묶어 날개를 잘라 버렸습니다. 행복하시고 그곳에서는 절대 슬픔에 젖은 눈을 하지 말아 주세요...

사랑하브로... 2009.05.25 22:06

ㅠㅠ 왜 이제야 찾아뵙게 됐는지 "사람사는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곳인줄만 알았습니다.님께서 계실때 힘을 드릴 수 있는 한줄의 글이도 올려드릴걸...오늘 하루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자리를 자리잡고 계신줄... 참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팬이었는데... 이제서야ㅠㅠㅠㅠ
부디 편안한 곳에서 편히쉬시길.....

내마음속의노짱 2009.05.26 01:25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노대통령님 그곳은 편안하신가요?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개비 2009.05.26 17:23

이렇게 작은것에 감사하시고,
작은것에 감동 받으시던,
소박한 님을
저 나쁜 악마들은
왜 그리도 무시위하고
두려움에 떨며
님을 가두어 코너로 밀었을까요.
님이시여...
부디 평안하시고
자유와 행복 맘껏 누리소서...

봉화택입니다 2009.05.26 18:21

진정 소박한 분이셨네요.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싶습니다.이젠 뵈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

왕눈이즈 2009.05.27 03:20

ㅠㅠㅠㅠㅠㅠ 보고싶어요

울보a 2009.05.28 05:34

부끄럽습니다.. 이렇게나 사소한 일들을 감동과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니..
소박하시고 인자하시고 남을 배려하실줄 아시는분..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보고 싶습니다..

gobara 2009.05.30 01:17

대통령님 나오세요.....T.T

봄나비야 2009.05.30 10:11

벌써 그리워지네요..이젠 미루지 않겠습니다. 표현하는것에 행동하는것에 참여하는것에..하루하루 미루다 님을 보냈습니다.저렇게 따뜻한 님을.....

행복 사랑 2009.05.30 11:36

늘 입에 감사를 달고사신분 그래고 작은일에 감동하시는우리의 대통령님 그동아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짱이~~ 2009.05.30 19:45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립습니다. 가슴이 베어웁니다.

뭔가해야해 2009.05.30 22:32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모든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말이나 걸어볼걸 그랬습니다. 한마디라도, 여기 못났지만, 당신 편 한명 더 있다고, 그걸 표시라도 내볼걸요... 오늘은 시청앞에 나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악물고 생각합니다. 물은 바다로 가길 포기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요.

그리움과 2009.05.31 01:41

이렇게 소박하면서 또 훌륭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분..그리구 어리지만 강했던분이라고 저의 짧은식견으로 판단해보는데... ㅠㅠ 이런분이 그런선택을 할만큼... 정말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상황이구나 하고 조금 깨달은것같아요 ㅠㅠㅠㅠ 너무 보고 싶어요... 진작 당신을 알아보았더라면 이곳에 와서라도 좀 만나볼수 있었을텐데 ㅠㅠ 너무나 안목이 없었습니다 ㅠㅠㅠㅠㅠㅠ 그리구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ㅠㅠ

cellook 2009.05.31 20:26

항상 사람을 사랑했던 체취가 풍겨나는 글이네요. 아까워요

노짱해바라기*** 2009.05.31 21:36

사랑해요. 이 한마디 꼭 드리고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도도켓 2009.05.31 22:08

안타까워 미치겠습니다.....

내사랑초코 2009.06.01 15:23

저도 이때 꼭 봉하마을 가고싶었는데..ㅠ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보고싶습니다~!!

바보대통령님사랑합니다 2009.06.01 21:42

글을 보고 또 보고..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해진꾸 2009.06.02 01:20

아 눈물나 짜증나 눈물나서 짜증나요 노짱 어디간거야 돌아와요!!!!!!!!!

미소유니 2009.06.02 02:54

정말 바보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KimRaHee 2009.06.02 15:27

일찍좀 찾아뵈겠 나도..

눈갈사탕 2009.06.03 11:58

이제야 들어와 본 글... 회환이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닦고 싶은 분인 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마눌쫑 2009.06.03 18:02

가슴이 아파서 글을 읽을수가 없네요...

무지개노랑색 2009.06.06 11:35

이세상에 이런 분이 또 계시까요? 너무나무 그립고 보고싶습니다..희망이셨는데....ㅍㅍㅍㅍㅍㅍㅍㅍㅍ

꽃본 2009.06.07 18:14

사랑하는 님이시여!!

정녕 님께서는 이곳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시었습니까?

아직도 전 님이 이땅위에서 아니 계신다는걸 믿을수가 없습니다,

님을 잃은 충격에서 전 아직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홀러도 홀러도 그치지 않고 흐르는 눈물은 아직도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님이시여 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하랑 2009.06.08 22:18

메일메일 대통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럴때마다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이 보구시다구 남편한테 응석(?)을 부러보기도 합니다...

그래두, 아무리 그래두..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두 슬프기만 합니다...ㅏㅏ

pool1023 2009.06.10 22:55

'회환'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허전하고, 지켜드리지 못하고 추억만 썩평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도 저희 맘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대통령님은 저희 가슴마다 '씨앗'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이들의 몫이겠지요. 부디 지금은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똥돼지 성은 2009.06.17 11:48

좋으시분 우리조장 서은아 보고싶다

gmlakd2 2009.06.21 06:22

저도 노통 닦고 싶은데 ..노력해야겠네요 ...위낙 노는걸 좋아해서 ..

기주엄마 2009.06.24 14:29

노짱 대통령님 속담하나가 생각납니다

사는것도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우리의 마음속 지주께서 이렇게먼곳으로 이사가실줄은 정말 정말 꿈에도어심치않았습니다 시간이지날수록 아쉬움이 더함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어거지로라도 밀어부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죠
무엇때문에 그리멀리 이사하셨어요 현 시국이 불안하고 설쁩니다

지켜주시죠와다런선택을 하셨나요 죄송합니다미련버리지못하고(대통령님생각

봉장 2009.07.01 23:27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는 다는 흔적어요..

너구리08 2009.07.03 11:54

이런 작은 기쁨조차 지켜드리지 못 한것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irreplaceable 2009.07.13 02:24

고된듯하지만 글에서 행복감이 가득 묻어 나오는데...
그 작고 소박한 꿈과 행복마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에품다 2009.07.14 20:29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마음이 아픕니다...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무명민초 2009.08.05 19:21

보고 싶어 님의 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들 때마다
쌓여가는 이 무한한 행복감은 무엇인가요?
슬픔에 겨워 짓는 그리움일까요...
그렇네요 그것은님께서 주신 내 맘속의 아주 작은 깨달음이었네요.

Qkfroddl 2009.08.17 12:23

국민 세금으로 지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참 좋겠다. 함부로 내뱉은 말 한 마디에 남상국 사장의 가족들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냐?

점나도나물 2009.08.25 01:23

그리운 마음에 다녀갑니다..대통령님..

세라 2010.10.27 12:24

눈물이 흐릅니다..
그냥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시는것을 왜? 엠비는 그것도 허락을 안했는지?
대통령님?
부디부디 영면하세요.....그럽습니다..
가슴이 에렵니다.
사랑합니다.

흔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18	글을 올려놓고 보니 (237)	61593	노무현	2009.02.22
17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58)	67554	노무현	2009.02.22
16	한국정치학회와의 대담 (45)	32567	운영자	2008.10.16
15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53)	30594	노무현	2008.10.02
14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304)	124593	노무현	2008.03.27
현재글	생활의 작은 기쁨 (185)	128080	노무현	2008.03.09
12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 (252)	148182	노무현	2008.03.06
11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119)	124446	노무현	2008.02.29
10	안녕하십니까-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311)	163015	노무현	2008.03.03

9	부산 개성고(부산상고) 총동문회 (61)	60251	운영자	2008.02.29
8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인사말(봉하마을) (60)	31571	운영자	2008.02.26
7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행사(밀양역) (30)	21640	운영자	2008.02.25
6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노무현의 민주주의론 (48)	60556	노무현	2008.02.20
5	대통령 한 사람 힘으로 역사발전하는 것 아니다 (11)	13964	운영자	2007.11.11
4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5)	6483	운영자	2007.10.18
3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4)	4707	운영자	2007.06.08
2	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7)	7097	운영자	2007.06.02
1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20)	27257	운영자	2006.12.21